

강화도,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 가득 깊어가는 가을 축제가 펼쳐지는 강화로 오시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0월을 맞아 ▲2023 강화문화재야행 ▲화개정원 축제 ▲강화10월愛 콘서트 ▲‘가을’ 강화 와글와글 행사(소창으로 소풍가자) ▲한겨레얼 체험공원 플리마켓 ‘마니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화군 관광 메카에서 펼쳐지는 『화개정원 축제』

14일과 15일에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개정원 축제』는 ‘가자! 오색 낭만 속으로’라는 부제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신유, 박군 등의 축하무대와 아로마체험, 화분심기, 오색 포토존 사진 찍기 등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전망대에서 북한을 조망하며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은 또 다른 신선함을 선사한다.

뮤직 페스티벌 ‘10월愛 콘서트’ 개최

오는 21일 17시 30분 강화공설운동장에는 세대별 인기가수가 총 출동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노브레인, 김태우, 양지은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사한다. 또한 가수가 직접 군민의 사연을 소개하고 응원과 위로를 전하는 이벤트도 마련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강화의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게 불꽃놀이와 레이저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10월의 마지막 다채로운 축제 ‘가을, 강화 와글와글’

21일과 22일에는 강화의 ‘지역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가을, 강화 와글와글 행사’를 진행한다.

소창체험관, 기념품판매장 등 원도심 일원에서는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은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강화의 색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강화나들길 코스와 연계한 ‘와글와글 트레킹’을 새로이 추가했으며, 마지막으로 28일에는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 공연을 연계한 아트 플리마켓인 ‘마니놀이’가 개최된다.

마니산 한겨레 얼 체험관 인근 마니광장에서 진행되며, 마니산에서 등산 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선선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로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10월을 맞아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했다”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강화의 가을을 맘껏 즐기고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제4355주년 개천대제 봉행' 개최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채화식도 함께 개최



2022년 개천대제



전국체전 성화전달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3일 개천절을 맞아 마니산 참성단에서 '제4355주년 개천대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반도의 희망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함께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채화식'도 함께 개최한다.

칠선녀는 성무와 함께 성화를 채화하여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시작을 알렸고, 채화된 성화는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 성화대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강화군은 개천절에 참성단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개천대제를 매년 봉행하고 있다. 마니산 참성단은 단군이 나라를 건국하고 하늘에

감사하기 위해 제를 올린 개국의 성지이다.

또한 군은 국조 단군 때부터 마니산에서 지내오던 개천대제의 실질적인 복원을 목표로, 2019년부터 개천대제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우고자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례 매뉴얼을 정비한 바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개천절은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참성단 개천대제를 잘 보존하여 우리 민족 정체성과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려, 강화에서 다시금 꽃을 피우다' 강화군, 2023년 강화문화재야행 성황리 성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용흥궁공원 및 소창체험관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강화문화재야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인 강화문화재야행은 '고려, 강화에서 다시금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7야(夜) 총 2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번 문화재야행은 강화초등학교 관악단, 강화주니어외교관, 열두가락 농악단 및 전문 배우가 참여하는 팔관회 개막 퍼레이드와 유천호 군수의 개막선언으로 본 행사를 시작했다.

고려 문양으로 제작된 조명 빛을 따라 용흥궁, 성공회 강화성당, 고려궁지, 소창체험관 등 야간 개장한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며 당시 생활상을 엿보는 시간은 물론 승마체험, 스탬프 투어, 고려궁지에서 목성, 토성 관측 등은 야행을 즐기는 묘미

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둘째 날에는 강화군민들이 운영하는 윈드 오케스트라단, 드럼 및 기타 동아리단의 공연과 함께 성공회 강화성당에서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하는 버스킹 공연 등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한편, 문화재 야식 코너에서는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우 스테이크를 판매하며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이 판매한 수입금은 전액 관내 저소득층에게 기부된다.

유천호 군수는 "올해 문화재야행은 문화재와 다양한 문화행사가 어울린 가운데 군민과 함께 만든 축제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10월 매주 펼쳐지는 교동도 화개정원 축제, 10월 애(愛)콘서트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2023 문화재야행



2023 문화재야행

강화군, 스마트한 건강관리, 헬스케어 경로당 15개소 추가 확대



경로당에 설치된 헬스케어 장비



경로당에 설치된 헬스케어 장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 경로당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읍·면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 총 39개소의 헬스케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읍·면 경로당 14개소와 보훈회관 등 총 15개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경로당은 사용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경로당별 헬스케어 매니저를 배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828건의 건강측정이 이루어졌으며, 9월 기준

1,420명이 회원가입을 하였다. 건강측정 자료를 통해 고위험 추정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상담도 359건으로 나타났다.

군은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관리뿐 아니라 ▲양방향 화상시스템 구축 ▲경로당 간 화상회의 ▲화상을 통한 건강상담 ▲다양한 건강·여가 강좌 개설 등 여가생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는 헬스케어 경로당을 더욱 스마트하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국가암 건강검진 받으면 1석 3조!

건강 챙기고, 선물 챙기고, 행복 챙기고 / 선착순 500명, 우산 또는 도마 3종세트 증정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국가 암검진 독려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암 검진 수검자(7월~12월)를 대상으로 홍보물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 위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수검 홍보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 연도 출생자로 ▲위암 40세 이상(2년 주기)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상·하반기 연 2회) ▲대장암 50세 이상(매년)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폐암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2년 주기)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는 무료 검진이 가능하며, 그 외 대상자는 10%만 부담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올해 강화군에 주소를 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고, 수검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검진 확인서, 결과지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강화군 보건소 건강검진실을 방문하면 된다. 상품으로 선착순 500명에게 ‘우산 또는 도마 3종 세트’를 증정한다.

군 관계자는 “암 검진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군민들이 암 검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암 검진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최벽하 기자

국가암검진! 잊지않고 받으셨나요?
선물 받아주세요~

참여기간: 2023. 10. 10. ~ 12. 31.

대 상: 23. 7. 1. ~ 12. 31.기간에 일정한 실시한 강화군민 (국가암검진 대상자)

참여방법:

- ① 올해 일정한 대상자는 정년70세에서 국가암검진을 받는다.
- ② 증정서류(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강화군보건소 1층 건강검진실을 방문한다.
- ③ 개인정보 수검·이용 동의서 작성 후 홍보물품을 수령한다.

증정품: 우산 or 도마 3종세트(11) 선착순 500명

강화군 국가암검진 대상 및 검진 일제

구분	암종	대상	검진일	검진장소	검진방법	검진주기
일반인	위암	40세 이상	10월, 12월	강화군보건소	위암검진	2년
	간암	40세 이상	10월, 12월	강화군보건소	간암검진	2년
고위험군	위암	40세 이상	10월, 12월	강화군보건소	위암검진	2년
	간암	40세 이상	10월, 12월	강화군보건소	간암검진	2년
일반인	대장암	50세 이상	10월, 12월	강화군보건소	대장암검진	2년
	유방암	40세 이상	10월, 12월	강화군보건소	유방암검진	2년
일반인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10월, 12월	강화군보건소	자궁경부암검진	2년
	폐암	54세~74세	10월, 12월	강화군보건소	폐암검진	2년

유의사항

- 증정서류에 정년70세, 성별, 생년월일 기재 필수
- 수검자 중 증정서류의 신분증 지참 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국가암검진 대상자 조회 110032-250-4347 또는 1577-1000

강화군보건소
국가암검진 홍보 포스터

강화군선수단, 2023 인천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인천시민체육대회 강화군선수단 출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6일 인천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3 인천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200명의 강화군선수단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2023 인천시 시민생활체육대회’ 인천시 10개 군·구 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추진되는 행사로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군·구 단체장 및 선수단 5,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 입장식, 대회사, 유공자 표창,

선수단 대표 선서, 체육경기,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인천시 체육 발전 공로를 인정 받아 강화스포츠클럽 하재동 회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체육경기는 이어달리기, 800m 계주, 축구다트, 볼볼농구 4개 종목에 10개 군·구선수들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유천호 군수는 “6년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강화군 선수단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한 날”이라며, “강화군의 열정을 뽐낸 선수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강화군,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주민 건강 보호



방치슬레이트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관·방치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지 등에 처리되지 않고 보관·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소유주에게 처리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군은 보관·방치 슬레이트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1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높은 처리비용으로 그간 방치되어왔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석면과 비산 등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DMZ 자유·평화 대장정』 3기 원정대 출정식



DMZ 자유평화원정대 3기 출정식



DMZ 자유평화원정대 3기 출정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강화 전쟁박물관에서 12일 '디엠지(DMZ) 자유·평화 대장정' 3기 원정대가 출정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3기 원정대 출정식은 강화군 주관으로 문체부, 행안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파주시, 한국관광공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하반기 걷기여행주간 선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전쟁과 분단의 아픔, 지키고자 했던 '자유'의 가치를 되새김과 동시에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장정은 지난 달 18일 1기를 시작으로 내달 19일까지 총 420명

이 6기로 나뉘어 DMZ 평화의 길*을 걷게 된다.

* DMZ 평화의 길 : 인천 강화~경기 김포~파주~연천~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까지 총 9개 시·군을 걸쳐 조성된 524km 도보길

이번 3기 원정대는 일반인 신청자 7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2일 강화 평화전망대를 출발해 오는 18일까지 6박 7일 동안 접경지역인 강화, 김포, 연천을 거쳐 강원도 인제, 고성까지 DMZ 평화의 길 105km 구간을 걷는다.

군 관계자는 "원정대원들이 접경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1기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출범식 개최 3분기 정기 회의 통해 본격 공식 일정 시작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출범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출범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회장 김경호)가 지난 12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화군협의회 출범식 및 3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강화군청 진달래홀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하여 자문위원 4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21기 협의회 구성 현황 보고, 위촉장 수여, 취임사, 축사, 협의회 임원 인준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장은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하여 유천호 강화군수가 전달했다.

제21기 민주평통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를 활동 목표로 하며, ▲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반 고도화 ▲바른 통일 담론 확산을 통한 국민 통합 플랫폼 역할수행 ▲재외동포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활성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

미래세대 지원 등 4개의 방향을 설정해 2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김경호 협의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 기반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제21기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위촉되신 자문위원분들께서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을 선도하고 올바른 통일관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축사를 전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각종 통일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군도 14개 구간 오는 18일 24시간 도로 교통량 조사 실시



2023년 도로교통량조사 위치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로정비 수요 계획 및 그 우선 순위를 판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강화고교 입구를 비롯해 군도 14개 구간에서 차량의 시간대별, 방향별(상하행), 차종별(12종)로 교통량을 조사한다.

군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의 안전한 장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총괄 도로과장을 중심으로 조사요원 42명이 투입되어 각 측정마다 2인 1조로 24시간 동안 교대근무로 진행된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읍·면 교통량 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야간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18일 오전 7시부터 19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군도 14개 구간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도로행정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도로의 혼잡 상태를

유천호 강화군수는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지만 일관성 있는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도로교통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확한 교통량 DB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자동차세·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31일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등록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8월 30일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체납차량 또한 해당된다.

군은 영치 예고와 자진 납부를 우선 안내할 계획이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공매 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한 내에 미납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단속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청 전경



차량번호판 영치 활동

12월 25일까지, 어재연 장군 탄생 200주년 기념 강화군 강화전쟁박물관, '어재연, 구국의 길을 걷다' 특별전 개최

강화군(군수 유천호)과 (재)충장공 어재연장군 추모 및 신미양요 기념사업회는 강화전쟁박물관에서 12월 25일까지 '어재연, 구국의 길을 걷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어재연 장군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특별전은 어재연 장군의 성장과 활약상, 신미양요*의 역사적 의미를 관람객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신미양요는 미국이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1871년(고종 8) 미국 아시아 함대가 강화도를 무력 침공한 사건이다. 어재연·어재순 형제를 비롯해 350여 명의 조선 관군이 전사한 전투이다.

전시는 ▲전시회를 열며 ▲호국의 별이 되다 ▲출생과 성장 ▲무관의 길을 걷다 ▲어재연, 신미양요의 중심에 서다 ▲신미양요의 역사적 의미 ▲신미양요 당시 조선군과 미군의 무기 비교 ▲빼앗긴 유물들 ▲기억과 추모 그리고 역사 총 9개의 패널로 구성된다. 특히,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신미양요에서 순국한 장병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주요 유물로는 ▲조총, 별운검, 환도와 같은 조선 후기 관군의 각종 무기류 ▲어재연의 장례식에 조문 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조문록(弔問錄) ▲어재연의 아들 어병수가 아버지 어재연과 작은아버지 어재순에 관한 글을 편집한 충장공유사(忠壯公遺事) ▲어재연·재



'어재연, 구국의 길을 걷다' 특별 전시장

순 형제에 관한 글을 모은 쌍충집(雙忠集) ▲어재연에게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내린 충신 어재연 추증 정문 ▲어재연 장군 교지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미군 킬트 해병 대위가 신미양요 때 노획한 도검이 주목할 만한 유물이다.

강화전쟁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어재연 장군을 비롯해 신미양요에서 싸운 순국 장병을 추모하고, 신미양요에서 활약한 호국 인물의 역할과 업적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강화군, 노인일자리사업 '신바람·흥바람 나들이' 문화활동 진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9월 20일부터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960명을 대상으로 '신바람·흥바람 나들이' 문화활동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바람·흥바람 나들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 기회가 적었던 어르신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고, 그간의 노인일자리 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했다.

군은 내달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강화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화개정원을 탐방하며 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된 어르신들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나들이 가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 감사드린다.”며, “특히, 최근 개장한 화개정원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북녘까지 보이는 화개산 전망대에 올라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심 노인복지관 관장은 “상반기에 문화활동을 진행했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일자

리 참여 어르신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은 노인 인구가 많은 만큼 소득 보장과 돌봄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역할과 의미가 크다”며,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참여 인원을 374명 늘리고, 헬스케어매니저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개발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나들이

친구들아, 이제 숲에서 뛰놀자! 강화군 석모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석모도 수목원 체험



석모도 수목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석모도 수목원 내에 자연과 교감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유아숲체험원은 규모 5,000㎡로 아이들의 자연 체험 위주 공간으로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가 배움이 되는 친환경 교육시설이다.

군은 오는 11월 초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개방해서 유아들의 창의력과 감성 발달을 도모해 맞춤형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야외 학습 체험장인 밭줄 놀이시설·통나무 놀이시설·유아 짚라인 등의 시설이 설치되

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 난간, 대피시설, 보행 매트 등도 갖춰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자연을 향한 직관력·상상력·창의력을 증진하고, 아토피 완화 등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통해 인공적인 환경에 익숙한 아이들이 숲에서 놀고 자연을 배우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동절기 대비해 4가지 분야 중심으로 방역 추진 강화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추진



강화군, 첨단 드론을 이용한 고병원성 AI 방역



철새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2024시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후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를 통해 바이러스를 조기 인지하고, 가금 농가와 축산차량 운전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18가지 행정명령을 공고·발부했다.

이번 특별방역 대책은 내년 2월 29일까지 ‘철새 방역 관리 강화’, ‘농장 차단 방역 관리 강화’ ‘농장 간 확산 방지’, ‘방역 지원 체계 확립’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의 주요 원인인 철새의 분변을 소독하고, 첨단 드론을 이용한 맞춤형 방역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강원도 철원의 양돈농가에서 계절과 관계없이 ASF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방역 수칙 현수막을 배부하는 등 맞춤형 방역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올해 국내 A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AI 발생이 전년 대비 14.7%(1월~8월)가 증가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국내 조기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AI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가금 농가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변 경종 농가 분들의 협조가 절실하기에 추수 후 반드시 가을걷이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 최백하 기자

올해 검진 대상은 홀수 연도 출생자 해당 인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독려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빠른 수검을 당부했다. 올해 검진 대상은 홀수 연도 출생자다.

인천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나아가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는 20세부터 64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검진 항목은 흉부방사선·요검사·혈액검사 등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은 66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대주와 세대원을 대상으로 골밀도검사(여성만)·인지기능장애검사(2년마다)·생활습관평가(70세) 등을 검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초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안내문 및 건강검진표’를 발송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통해 인천시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면서 “연말 수검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이 허락할 때 미리 건강검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인천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10월부터, 24시간 상담 및 출산·양육 맞춤형 지원 / 체계적 지원을 통해 위기임산부 조기발굴 및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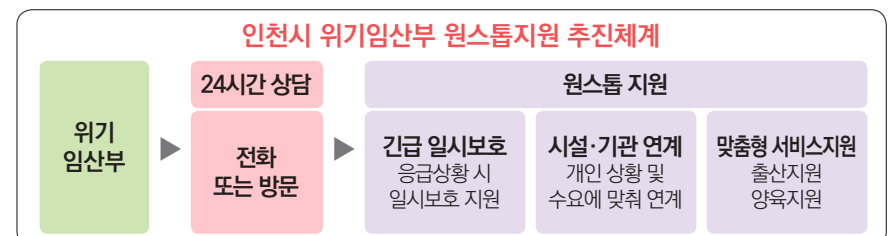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부터 소득 기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임신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신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위기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2,267명이다. 그 중 1,148명은 지자체에서 확인을 마쳤지만, 1,119명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 미혼·기혼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인천자모원에서 맡는다.

센터는 ▲24시간 상담(032-772-2071)부터 ▲긴급 일시보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복지센터 등 시설·기관 연계 ▲출산·양육 지원 등 위기 임산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출산과 비출산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원스톱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고

이경수

용흥궁의 주인은 누구인가



용흥궁 입구

원래 이번 호에 강화의 지명에 관한 글을 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신문문을 읽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용흥궁을 다루기로 마음먹게 된 기사를 발췌합니다. <‘친일파 이해승 후손’ 힐튼호텔 회장 땅 환수 소송, 정부가 졌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2023.10.06. 정시내 기자) 기사입니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 정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려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시도유형문화재 용흥궁(龍興宮)은 ‘강화도령’ 이원범이 철종으로 즉위하기 전에 귀양살이하던 집입니다. 누추한 초가였는데, 1853년(철종 4)에 강화유수 정기세가 기와집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50년쯤 지나서 이재순이 용흥궁을 중건(重建)합니다. 중건한 해가 1900년입니다.

용흥궁에 잠저 비각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비석 앞면에 ‘哲宗朝潛邸舊基’(철종조잠저구기)라고 새겼습니다. 철종의 잠저가 있던 옛터라는 뜻이지요. 즉위하기 전 임금이 살던 집을 잠저라고 합니다.

잠저의 잠(潛)은 ‘잠수하다’ 할 때의 ‘잠’입니다. 물에 잠기다, 숨어 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저(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잠저’는 ‘잠룡’과 관계있습니다. 잠룡(潛龍)은 아직 하늘에 오르지 않고 물속에 숨어 있는 용이라는 뜻입니다. 즉위 전의 임금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주목되는 사람을 잠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잠저란, ‘잠룡의 저’ 정도의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흥궁은 철종의 잠저라기 보다 적거(謫居, 귀양살이)하던 집이라고 하는 게 실제에 가깝습니다. 흔히 쓰는 말로 ‘적거지’가 되는 것이죠. 철종 즉위 후, 그의 집안이 죄인 집안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야 했기에 당대부터 용흥궁을 잠저라고 표기했습니다.

비석 뒷면에는 ‘大韓光武四年庚子九月 日重建’(대한 광무 4년 경자 9월 일 중건)이라고 새겼습니다. 광무 4년 경자년이 바로 1900년입

니다. 그런데요, 《속수증보강도지》(1932)에는 대한제국 때인 계묘년(1903년)에 이재순이 용흥궁을 중건했다고 나옵니다. 비문과 3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흥궁을 중건한 이재순은 철종의 형인 영평군 이경응의 양자입니다. 철종 집안의 대를 영평군 이경응의 후손들이 잇게 되는데요, 계속 양자가 계승합니다. 물론 재산도 물려받았습니다. 이경응의 양자 이재순, 이재순의 양자 이한용, 이한용의 양자 이해승(1890~?)입니다.

위 기사에, 나라에서 환수하려던 땅이 홍은동에 있다고 했지요. 철종의 생모인 용성부대부인의 묘가 경기도 포천에 있습니다. 원래 있던 서울 홍은동에서 이장한 것입니다. 홍은동 묘역이 상당히 넓었는데 그게 이해승 후손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1910년, 일제는 대한제국이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 데 공을 세운 조선인 수십 명의 등급을 나눠서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귀족 작위를 주었습니다. 21살 이해승은 제일 높은 후작이 되었습니다. ‘상금’도 16만 8천엔 받았어요. 지금 가치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열심히 친일 활동을 하며 일제의 특혜를 받아 돈벌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왕가를 이은 사람이 대표적인 친일파가 된 것입니다.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친일파에 대한 심판의 기회가 마련됩니다. 1949년 2월 이해승도 반민특위 조사를 받고 간헐했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강제 해체되면서 모든 친일행위자가 풀려납니다. 이해승도 풀려났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그 시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습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집니다. 이때 이해승이 납북되었습니다. 장남이 일찍 사망해서 이해승의 엄청난 재산은 손자 이우영(1939生)에게 상속됐습니다. 위 기사에 나온 이름, ‘이우영’은 홍은동에 호텔을 짓는 등 사업을 벌여 재산을 키웠습니다.

2005년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고 2006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가 추진됩니다. 이해승 집안의 재산도 환수 대상입니다. 이에 불복한 이해승의 후손이 소송을 걸었고 정부가 거듭 패소했습니다.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냥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용흥궁 잠저비각



용흥궁 안채

이해승은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1917년 처음 취득했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일은행과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이라며 땅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었다.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용흥궁 화장실

제일은행으로 넘어갔던 땅 소유권을 이우영 회장이 되산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16년 3월에 친일재산환수소송을 벌이면서 강화도 용흥궁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흥궁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이우영’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용흥궁의 주인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회장입니다. 다만, 잠저비각 있는 공간은 소유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십 년째, 사실상 나랏돈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용흥궁, 제가 낸 세금도 포함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네요.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두드러진 친일파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친일파 후손은 죄인이 아닙니다. 후손이 죄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친일파 후손은 죄스러운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간직해야 마땅합니다. 염치라는 단어의 의미를 곱씹어야 합니다. 조상의 재산 덕에 호의호식하는 후손이라면 특히 그래야 합니다.

이해승 후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려받은 부동산이 어디 어디인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제는 용흥궁을 조건 없이 강화군에 양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화 주민이 용흥궁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용흥궁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궁금해진 계기가 이러합니다.

용흥궁 잠저 비각 맞은편에 새로 지은 화장실을 없애야 하지 않겠나, 어느 모임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용흥궁이 개인 재산이라서 쉽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개인’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같습니다. 늘 잠겨 있는, 어설픈 모양의 현대식 화장실이 고풍스러운 용흥궁의 분위기를 확 깎니다. 철거하고 전체 건물과 어울리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또 있습니다. 두 개의 현판입니다. 용흥궁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세로로 내려쓴 ‘사단법인 한국명선차인회’ 현판이 기둥에 걸린 걸 보게 됩니다. 안채 대청마루 옆 기둥에는 ‘용흥궁 전통다

도 예절교육관’이라고 쓴 현판이 걸렸습니다.

용흥궁에서 이루어지는 다도 예절교육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 주민 입장에서 고마운 일입니다. 건물은 비어 있으면 더 빨리 상합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사람들이 드나들면 용흥궁 건물에도 생기가 돕니다.

하지만, 현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흥궁의 정체성을 흐리게 합니다. 엄연한 문화재인 용흥궁은 기둥 하나까지 소중한 유산입니다. 거기에 못을 박아 현판을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철종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서도 어긋납니다.

외지에서 온 답사객이 용흥궁 현판들을 보며, “이게 뭐야” 혀를 차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마도 답사객 상당수가 현판의 부적절성을 인식했을 겁니다.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몰라서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담당자께서 현판 철거 문제를 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용흥궁 현판



철종 어진[출처 국립고궁박물관]

칼럼

역사 바로 알기



김 학 준

전) 서울신문 기자

정도전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정도전이 고려 말 무장인 이성계를 부추겨 역성혁명(왕조의 교체)을 일으키고 조선의 골격을 만들었기에, 조선은 사실상 정도전이 건국했다고 해석하는 역사학자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에게 정도전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극이 여러 개 있었다. 그런데 사극을 즐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도전’보다 ‘삼봉’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한다.

‘삼봉(三峰)’은 정도전의 호(본이름 외에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호칭)다. 고려, 조선 시대에 사대부나 학자들은 상대방을 지칭할 때 이름보다는 호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호를 중시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정도전은 호를 왜 ‘삼봉’이라고 지었을까. 그리고 삼봉은 어디인가. 이를 둘러싸고 오랜기간 논란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봉은 삼각산(지금의 북한산)을 의미한다. 북한산은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세 봉우리로 이뤄졌다 해서 예로부터 ‘삼각산’으로 불렸으며, ‘삼봉’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도전은 삼각산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어릴 적 삼각산 자락에 있는 집에서 책을 읽으며 학문적 토양을 쌓았던 정도전은 이 시절을 중시해 호를 ‘삼봉’이라고 지었던 것이다. 정도전은 부친 정운경이 중앙 관료로 벼슬을 시작함에 따라 고려 도읍지인 개경(개성)으로 이주했다. 삼각산에서 개경이 보일 정도로 멀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삼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충북 단양군은 관내에 있는 ‘도담삼봉(嶋潭三峰)’에서 정도전의 호 ‘삼봉’이 비롯됐다고 강조한다. 일부 역사 문헌과 구전설화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래서 도담삼봉에 정도전 좌상과 기념비를 세워 단양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양읍을 가로지르는 큰길을 ‘삼봉로’라 하고, 사잇골목은 ‘도전1~12길’로 이름지었다. 때문에 단양 하면 정도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어찌보면 일종의 역사 왜곡이다. 하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역사적 인물을 지역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로 받아들여야지, 역사적 사실 차원에서만 조명하면 논란이 생길 것이다.

사학자 백지원의 저서 ‘조일전쟁(임진왜란)’에는 깜짝 놀랄만한 대목이 실려 있다. 백지원은 이순신 장군의 전적을 ‘16전 13승 3패’로 규정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23전 23승’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계는 이순신이 일본군을 상대로 한 해전의 횟수를 놓고 22전이니, 23전이니 24전이니 하는 논란을 펼쳤지만, 이순신이 전승했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백지원은 전장으로 가는 도중 우연히 만난 소규모 일본 함선이나 항구에 정박된 빈 배를 격침시킨 것은 해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료를 들어 웅포해전과 장문포해전 등은 사실상 이순신의 패배로 판단했다. 그는 “당시 여건으로 볼 때 16전 13승이라 해도 뛰어난 전적임에도 과거 군사정권이 이순신을 ‘전쟁의 신’으로 만들기 위해 전공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순신은 전공을 떠나 탁월한 지혜와 인품, 애민정신 등으로 볼

때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순신 장군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다만 이제는 그에게 덧씌워진 우상의 더께들을 벗겨낼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지난날 국정 교과서에서 임진왜란 당시 임금인 선조는 난을 극복해 묘호에 ‘조’가 붙은, 제법 괜찮은 왕으로 배웠다. 그러나 ‘징비록’을 비롯한 역사서에 선조는 ‘비겁하고 간교한 소인배’로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선조가 의주까지 달아난 뒤 중국 명나라에 망명을 요청하자 한 신하가 “필부조차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하는데 군주가 자신의 안위만 도모한다”고 질타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계속 망명을 요청했으나 명나라가 “정 오려면 하인이나 몇 데리고 와 요동 사신관에 머물러라”며 굴욕을 주자 비로소 망명을 포기했다.

게다가 선조는 의심이 많아 당시 의병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김덕령이 반란에 연루됐다고 의심해 고문 끝에 죽게 했다. 또 잇따른 승전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깊었던 이순신 장군을 명령 불복종으로 엮어 조정으로 압송한 뒤 심하게 고문해 죽기 직전에 이르렀으나 정탁(우의정)이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려 풀려났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광해군이 평안도에 분조(임시로 세운 조정)를 세워 혁혁한 공을 세우자 이를 시기해 분조를 해체시키고 광해군을 소환한 인간이 선조다.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은 대개 학창 시절 배운 역사 교과서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교과서는 역사를 매우 축약한 것이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것만을 근거로 할 때 사실이 왜곡되거나 상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의 사례를 보자.

뮤지컬 ‘명성황후(민비)’에서 민비(고종의 왕비)는 “제 한 몸 바쳐 나라를 구하려 한 국모”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역사서에는 민비가 자신의 친족 중심으로 민씨정권을 세워 국정을 농단하고, 청나라·러시아 등 외세를 끌어들여 조선의 망국을 부추긴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역사학자들은 민비와 더불어 문정왕후(명종의 모친)를 조선을 망친 왕비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아무리 예술(뮤지컬)의 장르라 하더라도 민비를 ‘구국의 왕비’로 둔갑시킨 것은 해괴한 일이다.

물론 역사의 해석·연구에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을 엄폐삼아 역사 왜곡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신빙성 있는 사료의 뒷받침 없이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부끄러운 역사를 미화하면서 어떻게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할 수 있을까. **1**



하점면,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생신 축하



하점면 어르신 생신 축하

강화군 하점면(면장 이상익)이 지난 13일 관내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생신을 축하했다.

이번에 생신을 맞은 홀몸 어르신 댁에 방문해 축하 케이크를 전달하며 노래를 불러드리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상익 면장은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어르신 댁을 찾아 직접 안부를 확인하며 외로운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보람차다.”며, “관내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점면은 어르신 말벗 되어드리기 및 안부 확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복지행정에 힘쓰고 있다. **1**

불은면, 복지위기가구 대상 위기상황 전수 조사 및 발굴 추진



불은면,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이에 주민복지팀이 한 달간(10월 10일~ 11월 10일)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중양발굴대상자 13명, 지자체발굴대상자 13명)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공공 및 민간 자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4차 발굴대상자 76명 중 14명은 공공서비스(긴급복지지원사업 연계, 에너지 바우처, 요금감면 서비스 등)를 연계했으며, 60명에게는 민간자원서비스(집수리 사업,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기부식품 제공 등)를 제공했다.

또한, 사회적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복합적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2명을 선정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강화군 불은면(면장 김용수)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위기 징후 정보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제5차 복지사각지대 일제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면장은 “이번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공백 없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다.”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이라면 면사무소에 방문해 상담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

양도면, 벼베기 영농현장 방문 격려



양도면 벼베기 현장 방문

강화군 양도면(면장 이순규)이 본격적인 추수철을 맞아 관내 벼베기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 청취 및 군정 주요 사항을 홍보했다.

관내 벼 수확 현장을 둘러본 이순규 면장은 농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하는 한편, 영농지도 및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순규 면장은 “긴 장마와 잦은 가을비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값진 결실을 얻고 있는 농업인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추수 활동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벽하 기자

「더 기부하고! 더 나누고! 그래서 더 행복합시다!」 강화군 복지재단, 기부·나눔 문화 확산에 총력



강화군 복지재단 부스운영



복지재단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

강화군 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이 복지사업을 위한 기부 모금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재단은 ‘리스펙트 도우너(respect donor)’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기부를 유도하는 고액 기부 프로그램이다. 일시 또는 누적 500만 원을 기부하거나 후원하기로 약정한 기부자는 회원으로 가입이 된다.

또한 복지재단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더 기부 더 나눔 더 행복’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부 시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돼 가장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6일과 7일 열린 강화 문화재야행에서는 홍보 부스 운영 및 이벤트를 진행해 1,000여 명 이상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외에도 리플렛 배부, 카드뉴스,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화군 복지재단 후원방법은 일시·정기(CMS)·물품후원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재단으로 방문하거나 유선(☎032-933-103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윤근 이사장은 “기부를 통해 나눔과 행복의 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다.”며 “기부금·품 등은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양사면, “어르신 이제 잘 들리시죠?” 소리 증폭기, 확대경 설치



양사면 소리 증폭기 등 설치

강화군 양사면(면장 이지영)이 사회 취약계층의 민원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면사무소 민원실 내 소리 증폭기와 확대경(70만 원 상당)을 설치했다.

대부분 고령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 설치했으며, 소리 증폭기는 커버를 교체할 수 있는 헤드셋 형태로 되어 있어 위생적인 관리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확대경은 기존 돋보기안경과는 달리 A4 크기의 돋보기 형태인 스탠드형으로 마련했다.

이지영 면장은 “어르신 및 사회 취약계층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

서도면, 벼베기 영농현장 방문해 격려



서도면 벼베기 현장 방문

강화군 서도면(면장 이정실)이 본격적인 벼 수확철을 맞아 지난 4일부터 지역 영농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봄철 이상 기후와 여름철 태풍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에 힘써 수확의 결실을 맺은 농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질미 생산을 위한 영농지도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계획 등 군정 시책을 홍보했으며, 도서지역인 서도면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업인 김모 씨(62세)는 “영농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격려해 주는 모습에 큰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실 면장은 “영농현장 방문을 통해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행정에 적극 반영해 더 나은 농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우리 아이의 비만, 변화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의 범주를 벗어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의하면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비만이 심할수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소아 비만환자를 위한 신호등 식사요법			
식품군	중독군 (자극적/과잉 영양소)	노랑군 (과식분 섭취)	빨간군 (위험음식)
채소군	오이, 당근, 배추, 무, 김, 파, 대파, 토마토 등		채널드 (마요네즈 사용)
과일군	과일	사과, 배, 배, 수박, 건 과일, 주스, 토마토	과일젤리
어육류군 (생선포함)		가금류를 제외한 육류, 생선, 생선포함, 생선, 구이, 생선, 생선, 두부	튀김, 패스트 (치킨, 피자)
우유군		전유유, 두유, 분유, 치즈	가당우유 (초코, 딸기 우유)
곡류군		밥, 빵, 국수, 떡, 감자, 고구마	과자, 튀김, 도넛, 감자튀김, 맛탕
지방군			마가린, 버터, 마요네즈
기타	음차, 전채		아이스크림, 설탕, 사탕, 꿀, 꿀라, 잼, 고지, 케이크, 빵, 초콜릿, 롤, 유자차, 꿀떡, 약과, 찰떡, 핫도그, 햄버거

소아 비만환자를 위한 신호등 식사요법(사진출처 - 질병관리청)

■ 소아청소년 비만의 원인

소아청소년 비만의 주요한 원인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식습관

- 과다한 열량 섭취 : 고지방, 고당분 등의 과다한 열량 섭취로 인해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저영양 식품: 영양소가 부족한 고열량의 음식은 오히려 식욕을 더 느끼게 하며, 비만과 영양결핍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신체 활동 부족:

TV, 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노출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신체 활동이 부족해집니다.

● 유전적 요인:

가족력은 비만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부모 중 하나 이상이 비만이었다면 자녀가 비만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개개인의 대사율과 신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식습관과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빈약한 식사 옵션, 저렴한 고칼로리 식품의 가용성, 도시화로 인한 거동 감소 등이 환경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문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는 과식을 유발하거나 활동 부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하거나 활동 부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양육 습관:

어린이의 식습관 및 활동 수준은 부모의 양육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건강한 식사와 활동을 장려하면 비만 발병 위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요인:

수면 부족, 대사증후군, 내분비 질환, 약물 사용 등과 같이 다른 신체적 요인 또한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아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소아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주요 합병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 2형 당뇨병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만약 치료되지 않으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고혈압 (고혈압):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 심혈관 질환

비만은 혈중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라이드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등)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폐질환

비만은 폐에 부담을 주어 호흡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호흡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관절 문제:

비만은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관절염과 같은 관절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정신건강 문제:

비만은 우울증, 불안, 자존감 저하 및 사회적 문제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소아청소년 비만의 예방

소아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한 식습관 촉진:

- 가족은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과일, 채소, 전체 곡물, 단백질, 낮은 지방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가족 식사 시간을 장려하고 패스트푸드 및 고지방, 고당분 식품을 제한하세요.

● 정기적인 신체 활동:

아이들은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고 적절한 수면 및 실내·외 활동을 즐기도록 유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 가족의 참여:

가족은 양육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식사 습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스크린 타임 제한

아동들은 하루에 허용되는 스크린 타임을 준수하도록

도와주세요.

● 정기적인 의료 검진: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받도록 하세요.

● 긍정적인 심리 지원: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세요.

● 교육

- 가족과 아이들에게 비만과 그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세요.
- 건강한 선택과 습관을 촉진하는 교육은 비만 예방에 중요합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의 합병증(사진출처 - 질병관리청)

우리는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에 주력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 건강한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QnA. 아이들의 비만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상 고도비만이 동반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치료가 가능합니다. 섭취한 음식에 포함된 지방의 일부를 흡수되지 않게 해서 대변으로 배설하게 하는 지방흡수억제제(먹는 약)와 포만감을 주며 당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욕억제제(주사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을 끊고 나서 다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QnA. 어릴 때 통통한 건 키로 간다는데, 식사 조절하다 키가 안 클 수도 있지 않나요?

어릴 때 통통한 것이 다 키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먹는 양만을 줄이다가는 제대로 된 성장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기보다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 먹는 습관을 들이게끔 해야 합니다. **1**

2023 강화군 청소년 페스티벌

2023.11.30.(목) 강화문화예회관

접수기간 | 2023.10.10.(화)~10.31.(화)
참가부문 | 노래, 댄스, 밴드
예선 일시 | 2023.11.23.(목)
예선 장소 | 강화문화예회관 대공연장
참가 자격 | 강화군 관내 중·고등학교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
심사방법 | - 중·고등부 구분하여 각 부문별(노래/댄스/밴드) 상대평가
 - 분야별 전문위원 심사위원으로 위촉 임명한 평가 실시
 ※ 예선심사 시 밴드 참가부문의 영상 제출로 감축
접수방법 |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boomcom2004@naver.com 제출

본공연 일시 | 2023.11.30.(목) 14:30~ ※ 입장권 14:00부터 가능
본공연 장소 | 강화문화예회관 대공연장
본공연 참가 | - 노래부문 4팀(중·고등부 각2팀)
 - 댄스부문 4팀(중·고등부 각2팀)
 - 밴드부문 4팀(중·고등부 각2팀)
문의 및 행사사무국 | Tel. 02-512-1790 E-mail: boomcom2004@naver.com

강화군

제5탄 강화나들길 발밤발밤 걸어요!

참여기간 | 2023년 10월 9일 ~ 10월 31일
참여혜택 |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5,000원 문화상품권 지급
참가코스 | 강화나들길 16코스(서해 황금 들녘길)
참가방법 | 「워크온」 모바일 앱 설치 및 가림
참가지역 | 강화나들길 이용객 누구나 참여 가능 (스마트폰 소지자 참여 가능)
스탬프 | 3개 이상 획득시 응모가능

강화나들길 스탬프 획득장소

1. 창후선착장
2. 망월둔대
3. 계룡둔대
4. 용두레마을
5. 망양둔대
6. 외포여객터미널

강화군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책전문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